

## 濟州조랑말에 관한 韓日 研究 動向

康 珉 秀\*

### 1. 序 論

이 地球上에 말의 出現은 5000萬年 以前으로 推定되며 지금부터 5~6000年前 家畜化되어 人類의 農耕文化와 더불어 貴重한 家畜으로 飼育되어 왔고 오늘날 200餘 品種으로 고정되어 全世界에서 6,463萬頭(1985年)가 사육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말 飼育은 先史時代부터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되나 文獻上으로는 부여, 옥저, 고구려 등에서 이미 牧場을 설치해서 소, 돼지와 더불어 말의 牧養이 이루어졌다.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牛耕이 시작되고 騎馬戰의 보급됨에 따라 말의 수요가 增大하여 牛馬牧場이 全國에 174個所나 되어 말에 먹일 飼料가 큰 問題가 되어 중국에서 목축(苜蓿: 콩과 식물)을 수입 이를 해결할 정도였다.

고려에서는 初期부터 획기적인 畜馬制度를 갖추어 1025年(현종 16年)에 牧監養馬法, 1159年(의종 13年)에 畜馬料式을 제정하여 말을 戰馬, 雜馬, 牝馬, 把父馬, 別立馬, 御馬, 伴馬, 常立馬 등 使用目的과 種類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靑草期(4~9月), 黃草期(1~3月, 10~12月) 등 季節에 따라 飼料의 品種과 量에 차이를 두어 飼育하는 등 畜馬의 科學化를 이루어 이러한 畜馬體系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조선시대에는 “말의 生産은 나라를 富하게 한다”, “나라의 富는 말의 數

\* 濟州大學校 畜產學科 教授

로서 결정된다” 하여 말의 增産에 힘써 全國에 53個所(세종때)의 國營牧馬場을 설치하고 말의 數에 따라 牧夫를 배치하였다. 이 당시 말의 用途는 軍事上의 戰馬, 통신용의 驛馬, 交通, 運搬, 交易用의 말 등 多様하였을 뿐만 아니라 食用으로도 큰 比重을 차지하였다. 이 밖에도 털가죽, 힘줄(馬筋)은 가죽신, 장신구 등에 사용되었고 갈기(馬鬃) 꼬리털은 갓 또는 관모(官帽, 髮帽, 髮笠 등)로 쓰이고 馬糞은 肥料, 藥用, 馬糞紙의 原料와 연료로 쓰이는 등 副産物의 用途도 다양하였다.

특히 고려와 元과의 관계가 깊어진 1276年(충렬왕 2年)에는 濟州島에 蒙古式牧場이 설치되어 元나라로부터 大宛馬, 韃靼馬, 나귀 등을 들여와 우리나라의 在來種馬와 더불어 이들 外來種 말도 많이 牧養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이 增産됨에 따라 明나라로부터 徵馬 요구도 잦아 고려는 元나라에 約 20회에 걸쳐 數萬의 말과 소를 보냈고 明나라에는 33회에 걸쳐 約 3萬匹의 말을 보냈다(鄭, 1986).

## 2. 韓國在來馬의 系統

吉田(1926)는 韓國倭馬를 中國 雲南, 貴州에서 產出하는 四川矮馬와 外部形態를 비교하고 外部形態學的인 立場에서 이 두 품종은 純蒙古系馬種인 東洋祖馬(三趾馬) Tarpan로부터 由來한 것이라고 하였다.

森(1930)는 1915年 長谷가 발표한 日本 石器時代矮馬의 肢骨과 韓國在來種의 그것과를 비교 검토하고 (1) 韓國在來種은 日本의 石器時代의 말에 起源하고, (2) 日本의 石器時代말은 四川矮馬에서 起源한다고 하였다.

井口(1933)은 「歷史나 地理的 관계로 보아서 日本의 在來馬는 그 根源을 蒙古馬에 發하고 있다는 것이 一般的으로 認定되어 있다」고 하였고, 木村(1955)은 「日本말은 아이누나 그 밖의 民族이 北으로 부터 千島 또는 樺太를 經過하거나 西南에서 韓國 中國을 거쳐 日本에 들어온 것」이라고 하였고, 芝田(1947)은 「韓國이나 維新前의 日本馬도 蒙古系이다. 그러나 蒙古系라고 하더라도 그 種類는 相當히 복잡하여 各 品種이 어디서 成立된 것인가

는 간단히 判定할 수 없다」고 하였다. 古島(1951)는 일본의 말은 彌生時代로부터 4世紀 사이에 南韓으로 부터 家馬가 導入되었다고 하였다. 이상의 報告들은 대개 日本馬의 起源을 蒙古馬에 求함으로써 韓國馬와 同一系이며 또 韓國으로부터 日本으로 건너간 것을 間接적으로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林田(1958)는 日本 在來馬의 系統研究에서 日本馬의 起源經路를 (1) 南支沿岸→九州, 日本의 黑潮海沿岸, (2) 南支沿岸→琉球→九州→日本 黑潮海沿岸의 經路를 취한다고 하여 森와 동일한 견해를 표명하여, 日本 在來馬는 韓國으로부터 건너간 것이 아니라 南支에서 日本을 經由하여 韓國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彌生文化期에 Tarpan系의 말인 中型馬가 韓半島로부터 導入되었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

姜(1965)은 東亞의 在來馬를 南方小型馬와 北方中型馬로 分類하고 韓國在來種, 西南中國, 日本南方島嶼馬는 前者, 蒙古, 伊犁, 하이랄 등의 말은 後者에 속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韓國의 胡馬(蒙古馬)라고 하던 것은 北方系, 鄉馬(在來種)는 南方系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여 林田 등의 說처럼 南中國沿岸으로부터 직접 또는 日本을 거쳐 南韓에 渡來하였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韓國 在來馬는 新石器時代부터 飼育되었으며 이것은 아마도 B.C 3世紀頃 부터 韓國에 影響을 끼치기 시작한 橢文土器 등의 스키타이 文化에 따라서 들어온 Tarpan 系統의 말에 起源하여 北에서 南으로 濟州島까지 傳播된 것이라고 推定했다.

### 3. 濟州馬의 體型

康 等(1986)은 濟州馬(210頭)의 體位를 測定하고 體高 110cm 以下, 111~115cm, 116~120cm 및 120cm 以上 등으로 나누어 그 分布를 조사한 結果 110cm 以下는 4.3%, 111~115cm 27.2%, 116~120cm 50.5%, 121cm 以上은 18.0%였다. 體位는 모두 12개 부위에 대해 측정했는데 牝馬(168頭)의 경우 平均值에서 體高는 117.0cm, 胸圍 141.4cm, 前管圍 16.1cm로 牝馬가 牡馬보다 크게 나타났다.

李(1961)는 濟州馬의 體格의 특징을 前低後高, 低方型, 中軀長大, 胸圍率 및 管圍率이 커서 代表的인 鞍用體型馬임을 지적하였다.

姜(1965)은 濟州馬의 由來를 본래의 濟州馬와 高麗때에 元이 導入한 蒙古馬가 交雜되고 그 後 李朝時代에 本土 또는 北方에서 輸入된 말에 의해서 血液이 混合되면서 오랜 시일에 걸쳐서 여러 要因에 의하여 體格이 왜소화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權(1966)은 濟州馬와 蒙古馬와의 體格 比較에서 體高가 濟州馬(牝 112.7cm, 牡 108.6cm)에 비해 蒙古馬(牝 128.9cm, 牡 132.3cm)가 훨씬 크며 胸圍의 경우에도 濟州馬(牝 132.8cm, 牡 127.1cm)에 비해 蒙古馬(牝 149.5cm, 牡 153.6cm)가 현저하게 크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姜(1969)은 濟州島馬와 本土馬와의 體格比較에서 體高는 濟州島馬 113.2cm, 本土馬 116.5cm로 本土馬가 컸고 그외의 部位에서도 本土馬가 더 컸다(尻高, 胸圍, 腰幅, 尻長 等). 이것은 本土內에서 기후풍토 및 인위적 환경 요인 등의 濟州島보다 良好하다는 점과 優良馬의 本土流入 等이 影響에 기인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姜(1965)은 서울경마장과 서울우마차 조합소속 濟州馬 71頭の 體位를 측정하고 高嶺(1948), 李(1961)의 成績과 비교하여 서울에 도입된 濟州馬가 더 컸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濟州島에서 優良한 良馬만을 선발해온 結果라 하였다.

지금까지 濟州馬의 體型에 관한 연구는 濟州島農會(1948), 李(1961), 姜(1965), 鄭(1981), 康 等(1986)의 國內에서의 報告와 植村(1937), 高嶺(1948), 野澤(1970) 등 日本에서의 報告가 있다. 이들 報告를 종합해 볼 때 體格의 大小를 나타내는 體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植村(1937)와 高嶺(1948)의 結果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成績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濟州島農會(1927)와 康 等(1986)의 體位(牝)를 비교하면 體高는 각각 114.0cm, 115.2cm로 1.2cm 크며 尻高 역시 113.0cm, 115.1cm로 2.1cm 커졌다. 그 외 胸深과 胸圍에 있어서도 커졌는데 이는 飼養管理 等の 改善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 4. 東南亞地域在來馬와의 體格比較

濟州馬(康 等, 1986)와 東南亞地域在來馬 즉 Tokara馬(林田, 1956), 對州馬(林田, 1956), 四川馬(吉田, 1926), 八重山馬(高嶺, 1948), 海南馬(本橋, 1940), 御崎馬(三村, 1953), 木曾馬(高嶺, 1948), 伊犁馬(吉田, 1926), 蒙古馬(高嶺, 1948) 등과 비교했다.

각 在來馬牝의 體高는 濟州馬가 117.0cm, Tokara馬 114.5cm, 八重山馬 117.6cm, 海南馬 111.8cm, 宮古馬 116.2cm로 體高 110~120cm인 小型馬들이며 蒙古馬(128.8cm), 御崎馬(130.9cm), 北海道馬(132.1cm), 木曾馬(133.6cm) 등은 體高 130~140cm인 中型馬群에 속하고 있다. 對州馬는 體高 122.0cm로 소형마보다 약간 크지만 同一系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胸圍에 있어서는 小型馬群에 속하는 濟州馬가 137.4cm(牡, 體高指數 119.3%), Tokara馬 128.4cm(111.5%), 四川馬 128.3cm(116.3%), 海南馬 129.5cm(113.6%), 八重山馬 135.1cm(112.4%), 中型馬 系統인 蒙古馬 155.9cm(118.9%), 御崎馬 146.2cm(108.5%), 木曾馬 155.8cm(114.1%), 伊犁馬 159.0cm(115.0%)였다.

胸圍의 體高指數에서 中型馬 系統인 御崎馬는 108.5%로 東南亞地域在來馬 중에서 가장 낮고 小型馬인 濟州馬는 119.3%로 가장 높았다.

林田(1958)는 韓國在來馬가 中國의 四川地方의 말과 類似點이 많아 韓國在來馬의 南來說을 주장하고 있으나 高嶺(1948), 植村(1937) 등의 濟州馬가 蒙古馬 系統이라고 추론하여 林田 等の 學說과 反對의 立場을 취하고 있다. 또 李(1961)도 濟州馬와 蒙古馬의 比較에서 品種學的으로 相違하다고 지적하였다.

康 等(1985)은 지금까지 보고된 東南亞地域在來馬와 濟州馬를 비교하고 四川, 海南 等の 西南中國大陸의 在來馬와 日本에서의 對州馬, Tokara馬 等 小型馬와 類似하다는 것을 인정한 반면, 蒙古馬와 日本의 中型馬 系統으로

분류되는 北海道和種, 木曾馬 等과는 差異를 인정하였다.

## 5. 濟州馬의 毛色

濟州馬의 毛色에 대한 研究報告는 그리 많지 않다(李, 1971; 野澤, 1970; 康 等, 1988).

康 等(1988)은 濟州馬의 文化財 指定에 앞서 조사한 結果에서 總 210頭 가운데 栗毛가 3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茶毛로 29.5%, 葦毛 22.4%, 炭毛 6.2%였고, 기타 土毛 2.4%, 駁毛 0.9%로서 극히 적었다.

한편 李(1971)는 濟州馬 毛色 在來名稱 및 分布에 관한 研究에서 조사두 수 2,980頭중 가락(炭毛) 7.31%, 총마(葦馬) 13.04%, 적다(栗毛) 30.50%, 월라(駁毛) 0.33%, 유마(茶毛) 42.76%, 고라(土毛) 2.20%, 부루(柏毛) 2.21%, 자홀(體星, 點斑) 0.89%, 거홀(淡白斑) 0.37%로서 유마가 가장 많고 공골마(月毛, sorrel)나 범마(虎斑)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毛色別 等級은 1위가 먹가락(炭毛), 2위 청총(葦毛), 3위 고치적다(栗毛), 4위 가라월라(炭毛에 白斑), 5위 진자류(茶毛)였다고 했다. 野澤(1971)는 濟州馬에서 茶毛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栗毛, 白色毛(河原毛, 月毛, 芦毛), 糟毛, 炭毛 等の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江崎 等(1961)은 木曾馬에서 茶毛가 43.2%로 가장 많고 栗毛가 17.2%, 炭毛 14.5% 순이었다고 했고, 松本(1947)는 北海道和種에서 茶毛가 28%, 河原毛(buckskin) 24%, 炭毛, 栗毛, 月毛가 각각 12%였고, 三村(1950)는 御崎馬에서 茶毛 61.8%로 가장 많고 黑茶毛는 22.5%, 炭毛가 11.2%로 보고 하였다. 이상의 여러 報告를 종합해 볼 때 濟州馬와 日本在來馬가 共通의므로 茶毛와 栗毛의 毛色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濟州馬의 毛色頻度는 모색종류별로 보아 '유마', '적다', '총마', '가락', '부루' 순으로 많고 등금모색별로 보아 먹가락, 청총, 고치적다, 가라월라, 진자류는 거의 없거나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모색빈도는 상위모색들이 적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사실은 과거 牧馬者들이 모색등급에

의한 상위마(上位馬)를 飼養하여 실지로 얻는 이익이 별로 없거나 오히려 손실을 경험한 흔적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였다(李, 1971). 그것은 이조시대에 상위마들은 無償이나 혹은 염가로 약취(略取) 당하였기 때문에 점차로 그런 상위마를 번식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또는 상위마를 중심으로 선발이 이뤄진 결과 하위모색이 다수 남게 되었다는 견해도 상당히 비중이 높은 이유로 여겨진다.

## 6. 濟州馬의 血液型

濟州馬의 血液學的 研究에는 野澤(1970), 金重桂 等(1985), 金承浩(1985), 鄭(1985) 및 韓 等(1988)의 報告가 있다.

野澤(1960)는 日本 주변의 島嶼型在來馬의 몇개 集團을 조사한 결과 特徵이 靑毛遺傳子(a), 優性稀釋遺傳子(D),  $U_1$ 遺傳子를 갖고 있지 않고 栗毛遺傳子(b)의 빈도가 현저히 높다는 것을 밝혔다. 濟州馬에는 이와 같은 特徵은 인정되지 않았다(野澤, 1970). 濟州馬는  $U_1$ 抗原의 出現頻度가 매우 높은 점으로부터 Tokara馬나, 琉球在來馬 等과 同系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金 等(1985)은 濟州馬의 血清蛋白遺傳子 座位別 表現型은 4個의 prealbumin과 3개의 albumin, 그리고 17개의 transferrin型이 검출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鄭(1985)은 濟州馬 血清중의 haptoglobin과 transferrin分布를 조사 하였고 金(1985)은 濟州馬의 血液像에 대한 조사를 통해 體高 116~120cm 범위에 드는 濟州馬의 平均 赤血球數는  $6.2 \pm 0.9(4.0 \sim 8.9) \times 10^6/\text{mm}^3$ , 白血球數  $8.6 \pm 2.0(6.2 \sim 14.6) \times 10^3/\text{mm}^3$ , 血色素量  $10.5 \pm 1.4(7.0 \sim 16.0)\text{g}/100\text{ml}$ , 血球容積  $30.3 \pm 5.3(20 \sim 60)\text{ml}/100\text{ml}$ 로 文 等(1975)의 成績과 차이를 인정하였다. 즉 文 等の 성적이 良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軍馬部隊에서, 優良한 말만 선발하여 이용하였고 또 표준적인 飼養管理를 해줬다는 것이 원인이라 하였다.

韓 等(1988)은 標準抗血清에 의한 濟州馬 血液型 分類에서 赤血球型 17種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형은  $U_2$ , X,  $ZZ_2$ ,  $A_1$  4종이었고, 그다음  $T_1$ , C,  $E_2$ ,  $N_1$  4종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나머지 Q, J, R, S, Z, K, P, H 및  $A^1$  형이 50% 이하로 비교적 출현빈도가 낮았고 H,  $A^1$  형은 모두 15.38%로 가장 낮았다. 17종의 혈액형이 濟州馬에서는 모두 출현해으나 北海道和種에서는 H, J 2종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 살펴본 것 외에도 濟州馬의 內臟(姜, 1969), 骨格(森, 1930) 등에 관한 研究가 있다.

## 7. 韓國在來馬의 骨格 및 內臟

韓國在來馬와 蒙古馬의 橈骨과 臼齒를 비교한 研究(森, 1930)에서 在來馬의 橈骨은 細小하나 蒙古馬는 약간 길고 굵었다. 頭長骨에 대한 臼齒長의 比는 在來馬가 크고 下顎骨下椽이 驢처럼 多小 波狀을 나타내는데 蒙古馬는 이것이 곧다. 따라서 韓國在來馬는 洪積世의 太古때부터 蒙古系馬와는 다른 系統의 말이라고 하였다.

姜(1969)도 韓國在來馬의 下顎骨下椽의 상태가 蒙古馬에 비해 약간 波狀이고 橈骨의 中央橫徑對最大長比가 11.6으로 蒙古馬의 11.9에 가깝고 前膊骨長의 體高比에 있어서 蒙古馬가 36으로 中型馬인 木曾馬 30, 韓國在來馬 2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韓國在來馬의 內臟에 대한 調查結果를 보면 韓國在來馬(姜, 1969)의 胃의 용적이 1.51l로 日本矮馬인 隱岐矮馬(本橋, 1954) 5.70l, Tokara馬(林田, 1956) 4.90l 보다 훨씬 적었고 小腸長은 13.05m로 隱岐矮馬 10.9m보다 길고 Tokara馬 13.3m보다는 짧았다. 盲腸長은 77cm로 隱岐矮馬 59cm보다 길고 Tokara馬의 86cm보다는 짧았다.

林田(1956)는 Tokara馬와의 比較에서 韓國在來馬의 結腸과 直腸이 隱岐馬와 Tokara馬와의 中間에 位置하고 있어서 이 結果만으로 種特異性이라고 斷定키는 어렵지만 매우 興味있는 現象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그의 內臟에 있어서는 韓國馬가 隱岐馬 및 Tokara馬보다 心臟, 肝臟, 脾臟, 脾臟 等の



重量이 더 무겁고 肺臟, 腎臟 等은 작았다고 한다.

## 8. 結 論

현존하는 우리 나라의 在來馬는 濟州道의 조랑말로 代表되는데 이 말은 Tarpan말에서 由來되는 鄉馬가 오랜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 여러 혈통 특히 蒙古馬나 아랍계의 大宛馬의 影響을 받은 品種일 것으로 생각된다.

조랑말(pony)이란 체구가 작은 말을 가리키는 말(李, 1982)로서 조랑말의 대표적인 品種은 濟州馬를 들 수 있는데 이 말은 古書에 의하면 果下馬 또는 土馬라고도 하였다(李, 1980). 果下馬란 이름의 유래는, 濟州馬는 몸집이 작아서 과수나무 밑을 갈 수 있는 말이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한다. 濟州馬는 털색이 다양하고 體高 117cm, 體長 122cm 정도로 몸 각 부위의 균형이 잡혀있고 외모는 경쾌하며 얼굴이 넓고 성질이 지극히 온순하여 사람을 잘 따르고 명령에 잘 순종한다.

또 濟州馬는 두바퀴마차에 210kg의 짐을 싣고 4시간에 16km를 갈 수 있으며 등에 80kg의 짐을 싣고 4시간에 16km를 갈 수 있다. 또한 밭갈이에 쓰일 경우 3시간 반에 70m<sup>2</sup>의 땅을 갈 수 있으며 사람을 태우고 4시간에 18km나 갈 수 있는 能力을 가지고 있다(鄭, 1986).

오랫 동안 우리 기후풍토에 순치되어 오늘날의 특성을 갖게 된 濟州조랑말은 科學營農의 發達로 利用價値가 떨어지면서 급격히 減少해 가고 있다. 이에 지난 '86년 2月 濟州조랑말을 天然記念物 第347號로 指定 멸종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貴重한 文化財인 조랑말의 활용을 위해 조랑말의 관광자원화 방안이 다각도로 檢討되면서 조랑말의 애교있는 競走도 보게 되었다. 이제 가장 重要한 문제는 天然記念物 指定에 끝내지 말고 血統의 保存에 있음을 銘念하여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姜冕熙, 1960. 韓國產馬의 歷史의 研究, 第1報 先史三國時代의 產馬, 韓畜誌, 2:14-18.
- \_\_\_\_\_, 1961. 韓國產馬의 歷史의 研究, 第2報 高麗時代의 產馬, 韓畜誌, 3:25-25.
- \_\_\_\_\_, 1963. 韓國馬產史 備考 II, 韓國產馬의 歷史의 研究, (第2報), 서울農業大 論文集.
- \_\_\_\_\_, 1965. 韓國在來馬의 系統에 관한 研究, 韓畜誌, 7:92-97.
- \_\_\_\_\_, 1966. 한국본토내의 在來馬에 관한 研究, 高麗大農大 論文集, 3:169-199.
- \_\_\_\_\_, 1969. 韓國在來馬에 관한 歷史的 形態學的 研究 韓畜誌, 11(4):351-371.
- 權鷹達, 1966. 濟州馬에 관한 小考, 研究의 指導, 農振廳, 7(3):68-71.
- 김종규, 1968. 원종개량마 보존 및 생산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제주시험장 연구 보고서, 159-163.
- 南都泳, 1969. 朝鮮時代 濟州島 牧場, 韓國牧畜業 研究의 一端, 韓國史 研究, pp.78-131.
- 李圭泰, 1974. 한국축산문화사①, 말 月刊畜産振興, 8:18-23.
- \_\_\_\_\_, 1980. 한국축산문화사⑦, 말 月刊畜産振興, 2:22-26.
- 李基萬, 1961. 濟州島馬 體型에 관한 生物測定學的 研究, 韓畜誌, 3:63-73.
- \_\_\_\_\_, 1962. 濟州島馬 體型에 관한 生物統計學的 研究, 忠南大 論文集, 359-398.
- \_\_\_\_\_, 1971. 濟州馬 毛色의 在來名稱 및 分布에 관한 研究, 建國大 論文集, 12:893-910.
- \_\_\_\_\_, 1985. 史的으로 考察한 우리나라 馬種의 古今, 굽소리, 韓國馬事會, pp.13-16.
- 정안나, 1985. 濟州道産 조랑말의 혈청중의 haptoglobin과 transferrin phenotypes 의 분포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鄭昌朝, 朴英一, 金承浩, 康太淑, 1981. 濟州馬의 保護增殖 및 利用性 확대방안 에 관한 研究, 濟州道廳 學術用役報告.
- 鄭昌朝, 康太淑, 1982. 濟州在來馬의 飼育現況과 經營實態에 관한 調查研究, 濟大論文集 第14輯, pp.53-64.
- 濟州島農會, 1935. 濟州島 牛馬改良增殖개요.
- 康珉秀, 鄭昌朝, 康太淑, 朴喜錫, 金東厚, 鄭在晚, 1986. 濟州馬의 體型에 관한 研究. 畜産論叢 創刊號, 23-29.

- 康珉秀, 1986. 濟州畜産의 어제와 오늘, 濟州道誌 第80號, pp. 82-92.
- , 1986. 第4編 産業·經濟, 第3章 畜産業, 南濟州郡誌, pp. 553-570.
- , 1988. 第3章 畜産業, 西歸浦市誌, pp. 588-618.
- 康珉秀, 鄭昌朝, 康太淑, 鄭在峻, 1988. 濟州馬의 毛色頻度에 관한 研究, 畜産農叢, 第3輯, pp. 29-32.
- 韓邦根, 張德支, 玄海成, 松本寬, 1988. 標準抗血清에 의한 濟州馬 血液型分類, 畜産論叢 第3輯, pp. 17-27.
- 植村卷太郎, 1937. 朝鮮在來馬の研究, 日畜會報, 10:135-150.
- 高嶺浩, 1948. 在來馬の體型に關する研究, 東京農專學術報告, No. 3.
- 佐々田伴久, 1935. 朝鮮馬事調査, 農林省畜産局, pp. 1-76.
- 森 爲三, 1929. 朝鮮馬の系統(豫報), 日畜會報, 4:90-112.
- 野澤 謙, 1967. 琉球諸島における馬(1), 在來家畜調査團報告, 2:34-38.
- 野澤 謙, 江崎孝三郎, 若杉昇, 林田重幸, 1965. 日本在來家畜に關する遺傳學的的研究 I, 島嶼型在來馬の遺傳的構成, 日畜會報, 36:233-242.
- 野澤 謙, 西田隆雄, 1970. 日本とその周邊地域の在來馬, 家畜の由來, 科學, 40: 29-35.
- 岡部利雄, 1953. 木曾馬について, 日本在來馬に關する研究, 75-162.
- 松本久喜, 1943. 馬の赤血球型の遺傳因子について, 遺傳, 19:118-120.
- , 1953. 北海道 在來馬について, 日本在來馬の關する研究, pp. 17-73.
- 三村 一, 1953. 御崎馬について, 日本在來馬に關する研究, 163-209.
- 加茂儀一, 1937. 家畜文化史, 改造社.
- 林田重幸, 1958. 日本在來馬の系統, 日畜會報, 28:329-334.
- 林田重幸, 大塚聞一, 野澤謙, 1967. 東亞在來家畜に關する研究 I, 濟州島馬の體型および血液型, 日畜會報, 38(別號), p. 93.
- 林田重幸, 山内忠平, 1955. 九州在來馬の研究 I, トカラ馬について, 日畜會報, 26:231-236.
- · ——, 1956. 九州在來馬の研究 II, 對馬の在來馬について, 日畜會報, 27:13-18.
- · ——, 1956. 九州在來馬の研究 III, トカラ馬と東亞諸地域馬との比較, 日畜會報, 27:183-189.
- 細田達雄, 金子忠恒, 1959. 馬の血液型の遺傳に就て, 日獸醫學會誌, 12:127-144.
- 安達誠太郎, 1924. 馬ノ毛色(栗毛, 青毛, 鹿毛)ノ遺傳二就テ, 日畜會報, 1:19-39.
- 鄭昌朝, 1985. 濟州馬의 生態와 文化財的 價値, 濟州道誌, pp. 102-109.
- 金承浩, 1985. 濟州馬 血液像에 관한 研究, 濟州馬의 血統定立 및 保存에 관한 研究, pp. 73-78.

金文哲, 1985. 濟州馬의 歷史, 濟州馬의 血統定立 및 保存에 관한 研究, pp. 7-17.

鄭丕留, 1986. 中國の家畜品種と その生態特徴(1), 畜産の研究 40卷 12號.

正田陽一, 1982. 馬の百科, 小學館.

\_\_\_\_\_, 1987. 世界家畜圖鑑, 講談社.

鄭船富, 1986. 원색동아세계 백과사전 25권, p. 164. 동아출판사.

이희승, 1982. 국어대사전, 민중서림.